

#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찬일	Editor	Donald C. W. Kim
전화	845-0849	Telephone	845-0849
발행호수	1780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1월 초1일	Issue No.	1780
	금요일	Date	Feb. 6, 1970: Fri.

## 소련. 애랍 연합원조를 확대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에 대항한 조치

(워싱턴 2월3일밤, 에이피) 백악관은 3일 닉슨대통령이 1월31일부터 "소련은 에지프트(애랍)에 무기공급을 증대할 의도이다" 라는 코스이긴, 소련수상의 각서를 받은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구러대통령 보도관은 각서의 형식, 내용에 대해서는 평배하지 않았다. 각서의 취지는, 미국의 이스라엘에의 무기원조에 대항해서, 에지프트에의 원조를 강화한다는 소련의 태도를 전한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산 웨넨.젯트 50기중 이미 반수의 인수를받았으며, 나머지 반수는 금년중에 인도될 예정, 또 이스라엘은 이보다도 더 조흔 조건으로 더 50기를 주문하고 있다.

## 점령지 해방의 결의, 넷서 대통령 연설

(베이루트 2월3일밤, 공중) 넷서.개랍연합대통령은 2일밤, 카이로에서 열린 만국의 원회의에서 연설하고, 무력으로 점령지를 해방한다는 애랍연합의 결의는 부등한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협상에서의 이스라엘과의 직접교섭은, 애랍에대해서 불만한 굴복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부하였다. 또 동대통령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애랍에대한 공조작전을 지지하고, 그대문에 무기를 공급하고있다" 라고 심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에의 전우폭격기추가공급을 시사한 전의 닉슨대통령의 언명을 직접으로 비난하였다. 또 넷서대통령은, 최근의 이스라엘의 오이오 주변공습은, 애랍연합국민의 결의와 단결을 강하게할 따름이다라고 말하였다.

## 영국수상, 중동문제로 소련수상에 각서

(런던 2월5일밤, 에이피) 윌슨영국수상은 코스이긴, 소련수상에 각서를 보내고, 중동의 무기원조의 억제를 호소한 닉슨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면유전협정의 순수에대해서 새로운 노력을 불른것으로 전해진다. 닉슨대통령은 윌슨수상의 각서는 전주의 코스이긴수상의 서한에 담았것이다.

## 소련. 애랍 연합에 무기 공증수송 개시

(베이루트 2월5일밤, 에이피) 레바논에서 발행되고있는 풀란서어신문은 동구의교육의 말로서, 소련이 3일전부터 애랍에의 무기공수를 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동지는 "이 무기원조에는 소련의 최신형기는 포함되어있지안라"라고하고있다. 한편 미군축에의하면 소련의 비행사들은 애랍의 표출단 비행기로 지중해상공을 비행, 미제6함대를 감시하고있다고말하였다.



### 애랍연합잠수함대가 이스라엘 함을 격침

(헬라비부 2월6일밤, 에이피) 이스라엘군사령부는 6일 "애랍연합의 파괴공작대의 잠수함부가 에이라트항에서 이스라엘해군의 보급선 2척을 폭파, 1척은 격침되고, 단 1척은 해안에 올라섰다" 라고 발표하였다. 폭파사건후, 이스라엘군은 스에즈운하북부와 이스마리아 서방 엘가빌의 애랍 연합군기지 와 나일곡 가나도라의 탄약저장소를 6시간에 걸쳐서 폭격하였다.

### 톤킨만 결의 폐기를 제안

(워싱턴 2월5일밤, 에이피) 상원의외교위원회의 비에트남문제정문회에서, 마시아스공화당상원의원은 국제문제에관해서 국회가 대통령에준 4항목의 권한의 행사승인의 폐기를 제안하였다. 폐기의 대상이 되는 권한승인결의에는, 미국의 비에트남개입에있서 "하라"는것으로 해석된 톤킨만결의도 포함되어있다.

마시아스제안은 또 될수있는데도 속이 미군전부대를 비에트남으로부터 철퇴시키자는 니슨정권안 지지를 표시하는것으로, 맨스윌민주당상원내총무가 동등제안자도되어있다.

### 서독 폴란드 회담, 왈샤와에서 예비접촉

(왈샤와 2월5일밤, 에이피) 서독, 폴란드양대표단은 왈샤와에서 제2차대전후 첫 양국공식회담의 예비 회의를 개최중이다. 5일의 예비 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도의 되었다고 본다. 국경문제가 회담의 중심이 될 모양이다. 양국수석대표는 독일측이 독일스국무상, 폴란드측이 워뉴이치의외무차관이다.

### 소련 전투준비강화를 명령, 중앙아시아군관구

(모스크바 2월5일밤, 풍동) 라스콜린은 4일, 중앙아시아의 약2천키로에걸친 중국과의 국경에 따른 소련군부대에대해서, 전투준비체제를강화하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중앙아시아군관구는 아후가니스탄과 몽골인민공화국에 7천 중국서부파 국경을 접하는 소련의 전 공화국을 포함하고, 신강.가제후 지구들 중심으로 여태까지 자주 중.소 군사충돌이 전해지고있다

### 북비에트남의 포로 처우를 비난, 파리에서

(파리 2월5일밤, 에이피) 5일 열린 파리회담평화회담제53회본회의는, 하비부미수석대표대리의 "북비에트남에있는 미군포로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있는것에 대한 최근 증거가 있다" 라는 비난으로 시작되며, 북비에트남에대해서 (1) 제네바협정의 준수 (2) 북비에트남의 포로수용소 현상에대한 긍정적인 사찰을 요청하였다. 북비에트남대표는 이에 대답하지안고, 남비에트남입시 혁명정부대표와같이 미국에대해서 무조건철퇴의 요구를 반복하였다.

하비부대표가는 비인도적인 대우의 증거는, 66년에 남비에트남에서 포로가된 미병 2명이 공중의 면전에서 처형 되었다는것, 미당국의 추제에의하면 북비에트남에있는 미군포로는 약6백명이며, 그 중 350명의 시명이 확신 되고있다.

### 닉슨대통령, 환경대책에 적극적 태도

(워싱턴 2월5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5일, 내주에 마지하는 보이.스카우드60주년제의 인사 때문에 백악관은 방문한 아빙그.후이스드 소년간회장이하 17명의 대표에대해서 "환경오염의 싸움"에 참가하도록 호소하였다.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단 사람리의 랏"으로하고 자기는 손을 데지안는 풍조가보인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다수가 싸우고 기어코 이겨야한다"

(제3면에 계속)

(제2면에서 계속)

"소년단 백만명이 가는곳 어디에서든지 환경의 개선.정화에 노력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큰 도움이 될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대해서 후이스드회장은 "내년에 소년단은 자연보호, 환경정화의 전국운동을 전개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닉슨대통령은 자일, 연방정부기관은 "환경오염의 원수의 하나"로되어있다고 지적, 연방정부사업, 시설에의해서 생긴 대기 와 물의 오염을 즉시 처리 하라고 행정명령을 포도하였다. 또 오늘 대통령은 인디아나포리스와 시카고를 방문하고, 도시 환경문제에대한 각의급의 회의에 출석한다.

### 二주일간, 실력행사를 정지 철도 노동, 고용 교섭에서 합의

(워싱턴 2월6일밤, 에이피) 철도노동조합은 5일 분쟁중인 철도각사와 관계 4노동조합이 21일 까지 파업, "랏크.아우드"를 정지할것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양자는 이미 11일까지 재판소명령에의해서 "랏크.아우드"는 금지되어있다. 또 에이.에스.엘.시 아이오의 동기대회가 내주부터 2주일간, 마이아미.비.취에서 열리고, 철도관계노동조합도 다수가 출석하기때문에, 약래까지 워싱턴에서 열리고있는 노동.사역교섭도 내주부터 마이아미.비취로 이동하기도되었다. 현재의 교섭의 중요점은 전담에 가라결을본 취업규칙의 변경에잇는데, 4노조중, 강만노조가 난색 을 보이코잇기때문에, 아직 해결의 길을 못보고있다.

### 미국방예산 7백+二억불 5+3억불감

(워싱턴 2월2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의 예산고서중, 국방예산권고는 712억불로, 금회계년도 보다 53억불감소, 또 존슨정권의 최후회계년도인 69년에 비교하면, 백억불의 축소가되었다. 대통령의 국방예산권고는 한도안정적미시망을 위시하여, 핵방위력의 확충에 중점을두는한편, 미군 병력을 3백만이하로 삭감할것을 목적으로하고잇는데, 이것은 5년만의 병력삭감이다. 대통령은 그의 방침에서 (1) 전략군예비제안고섭이 아직 합의의를 보지안는사이에는, 방위제위를 위시하여 잠재적략자의 협위의 중대에대해서 만전의 신제위를 진전시켜야한다. (2) 동맹국이 자국의 방위의 주요책무를 갖는다는 신방침과, 우선분쟁의 수와 종류의 현실적평가에서서, 병력과 지출의 삭감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였다. 비에트남철병을 배경으로 병력삭감은 25만2천5백20명의 선에 도달할 모양이다. 국방예산관계의 주요점에서는 다음과같다.

1. 소련의 핵공격에대한 전략공격전력으로서, 현재지상기지의 대륙간미사일 1500기, 잠수함미사일 650기이상, 전략폭격기 500기이상이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에스.에스.9미사일 배비가 긴행중 이고, 현재의 속도라면, 74년에는 미국의 미닛트.멘.미사일의 지하적남고를 파괴할수잇는 함을 가지게된다는 정보가있다. 이대문에 방위망의 계획속진이 필요하다.
1. 공정미사일의 성적을갖는 공군 비1폭격기의 개발예산을 계상, 70년대후기에 비비52폭격기와 교체시킨다.
1. 해저장거리 미사일의개발, 미국의 근해내지 항행중의 잠수함으로부터 소련, 중국에대한 공격이 가능 신국방예산의 권고는, 관련의 원자력위원회예산 23억6천3백만불을 가산하여도 예산 총액의 36.6%에 정지한다. 이비율은 1950년이래의 최저율로되어있다. 또 고서에서는 과거수년 이래, 비에트남전쟁관계비가 명시 되는것이 상에잇었는데, 이번에는 삭제되고, 당국도 71년 회계 년도의 비에트남관계예산에대해서 발표하기를 거부하였다.

(제 3 면)



### 미군기적추사건, 비에트남전쟁의 확대가능성없다, 미국정부 냉정히 주시

(워싱턴 1월30일밤, 공동) 미정부당국은 북비에트남, 라오스 국경에서의 미군기적추사건에대해서 68년가을의 북폭전면정지이때, 처음으로 미군기가 영격하여온것을 중시하고있는데, 이번의 사건이 일거에 전쟁축진을 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냉정히 보고있다.

동당국은 때무로우스키 국무장보도관이 "미국은 북폭을 재개하지안모이다" 라고 말하고있듯이, 북비에트남영내의 미시가지들을 보복목적한것에대해서, 이것이 북폭과 관련되지안온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요의 자각을 적극 피하려는 미정부의 생각이라고본다. 워싱턴의 소식통도 팔.독도인을 내는 니슨대통령정권이 북폭을 재개하여, 비에트남전쟁을 다시 확대할 의도가전혀없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미정부당국은, 무장기의 오위하 북비에트남정찰비행은, 북으로부터의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불가결이라고보고있으며, 정찰비행은 금우에도 계속될것이다. 이대문에 북비에트남이 비행정찰중의 미군기에 공격을 가하면, 북비에트남에대한 보복공격이 다시 발생할 위험은 충분이있다고본다. 미정부측의 정보에의하면, 북비에트남은 최근 오.지.민 도를 폭격하는 바. 52전략폭격기를 영격하기 위해, 미시업을 라오스영내에 배비하크있다고하며, 공중전이 격화할 우려가있다고는 단언할수없다. 한편 정부, 국회측에서는 테.독.도대표의 귀입에따라서 진권이 기대되고있는 파리회담이, 이시점에서 다시 정돈개개의 기회를 잃지안나 우려하는 경향이 적지안라.

### 공화당지사 후보에 킹 판사 출마성명

공화당지사후보로서 오래 소문이나잇는 험주슨 회재판소가정재판소주석판사 새사무일.킹씨는, 공화당으로 지사후보로서 출마할것을 2월3일에 정식으로 발표, 동시에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위해 판사직도 3월16일한으로 사임할것을 결정하고, 사.포를 윈스주지사, 티샤슨 주최고재판소판사장에 제출한것을 명백히하였다. 입후보에있서, 킹판사는 다음과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는 하와이 사회의 전력을 오염하고, 가정과 사회정신을 위협하고있는 주택난, 인구의 과잉치밀, 교육문제, 공수오염문제등과 대결하기에 전력을 다한다. 이들 위험은 장래에의 협회가 아니고 현재에 하와이주민을 위협에 떠러트리우고있는 엄청난 위협이다. 따라서 이들문제에대한 해결은 직답을 요하는 문제이다. 법을가로서, 또 판사로서 나는 결단과 실행으로 살아왔다. 문제에 직면하여 결단에 주저하지안올것을 나는 나의 과거의 기록으로 증명하고있다.

### 리종남 영사 관으로 전근

하와이한국총영사관의 리종남영사는 금번 신설되는 필립의 영사로서 전입되기로되어 이달말경에 필립으로 이주하게된다고한다. 약1년전에 하와이로 부임하여온 리영사는 그간 하와이에서 많은 친구를 만들었는데, 필도에 한국에서온 오류.건축업자들의 수가늘고, 여러가지 영사사무의 필요가 잇서, 이들을 위해 아게이니아에 사무소를 열고 사무를실시할것이라고한다. 리종남영사와 동부인도 가족의 성공을 축복한다.

### 동지회, 호상부 회의

동지회건물이 1월20일현재로 완 때되어, 그후의 처리사항을 토의 검토하기 위해서 동지회와 호상부 전체회의가 오는 주일날 오후에 동지회관에서 개최되어결정 되는것은 기보한바거니와, 이날의 문제요점이 판매금의 처리, 동지회장래의 감질, 리박사동상선립문제, 호상금지침자에의 호상금 반환 문제등을 포함하기때문에 호상부원과 동지회원은 한분도 빠짐없이 내왕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 동지회, 호상부 대회에서 호상금지출, 동지회 계속, 리박사 비위건립결정

동지회의 운명을결정하는 동지회, 호상부대회는 예정대로 지난 2월8일 오후2시반부터 동지회회관에서, 호상부원 33명, 동지회원 7명이 참석하 가운데 기행되었다.

동지회중앙부장 리정근씨가 출석은하섯스나 신병으로 균력이 부족해서, 대신 재무서기이신 김창수씨가 개최와 취지설명, 이어 애국가봉창이잇었다. 그리고 김영진선생께서 개최기도를 올리셨다. 그후 김창수씨가 출석회원의 호명을하고, 동지회대매전에대해서 동대매위원회이신 리영훈씨를 불러, 대매에대한 설명을하게하였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요약 다음과같다.

1. 호상금지출  
현재 생존하고계신 호상부원에게는 호상금을 지불하겠는데, 미남 호상금과 적립금, 원내금을 제하고 지출할것. 전남 한 호상부원에게는 미화 2백60불을 지출할것.
2. 동지회 유지 계속  
비단 동지회건물은 매각되어, 건물을 업드라도 어디까지나 동지회를 유지하여 독립을 차지한 한민족을위하여 일어나야할것이니, 동지회를 계속 유지해나갈것. 동지회운영, 임원, 사무실결정, 재정관계일절은 현임위원회에 일임하고, 임원회에서 결정한후 다시 대회를 소집할것.
3. 리박사묘지에 세울 비석을 동지회판매기금중에서 지출할것을 허가할것.
4. 기타 토의결정사항
  - \* 동지회주보사의 주자기와 동사판기등을 한국정부에 기부할것. 만일 한국정부서 원치안으면 하와이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양도할것.
  - \* 인하공파대라이 개인의 손으로 넘어갔다는데, 하와이에서 보낸 인하공대기금을 어찌 되었는지 김창원씨가 이의 신라인으로잇는데, 그의 기관과의 관계의 질문등이잇었다.

### 래평양주보 폐간의 말씀

동지회중앙부의 기관지이며, 하와이한인사회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지난 해동안 발간되어나왔고, 한국독립운동의 중추역할을하여온 래평양주보는 한국전대통령 리승만박사가 칭찬하여 그후 여러 지명유지가 대대 주필로서 한세기동안 활발한 활약과 기여를해나왔는데, 이 래평양주보가 이번 오를 기하여 작별의 인사를 올리게되었음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애석함을 금할수없습니다. 긴 역사를갖고 찬란한 과거, 용맹무쌍한 투쟁을하여온 동지회가 여러 친애하는 애독자들의 기대와 따듯한 후원에도 불구하고 폐간되게된것은 미국에서의 한국어신문의 필연적인 운명인가 봅니다.

과거 몇십년간 애끼시고, 애독하여주신 독자여러분께 래평양주보사일들은 심심한 감사를 올리오며, 내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과 행복이 기리기리 잇스시기를 기원하며, 작별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저이가 오랜 세월을두고 애용하는 신문주자기와 동사판기계는 한국으로 진정하기보 하였고, 한국에서 유용히 사용될것으로 믿고잇습니다.

동지회중앙부장 겸 래평양주보사장	리 정 근
래평양주보주필	김 창 원
래평양주보편집	김 창 수 울림

